

독자와 함께

정봉남 아이숲 어린이 도서관장 "우리아이 독서교육 이렇게"

독서기록장은 꼭 스스로 쓰게 부모와 함께 읽으면 효과 두배

도서관 문을 열면 아이들은 엄마 손잡고, 친구랑 같이, 언니 오빠와 함께 와서 책을 읽는다. 도서관 개관 때부터 왔던 아기 태연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 걷는다. 책 읽어주는 엄마 품에서 놀다가 여기저기 언니들 사이를 구경하고 다닌다. 그러다 또 어느새 새근새근 잠을 자고. 태연이가 잘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도서관 식구들의 큰 기쁨이다.

는 배갈고 었드린 하늘이 남매가 발을 까딱거리며 책을 읽고, 어제 어디까지 읽었는지 엄마한테도 알려준다. 여기저기 책을 읽어주는 낭랑한 목소리로 가득 찬 도서관, 참으로 흐뭇한 풍경이다. 아이들이 책을 싫어한다고 걱정하는 어른들이라면 한 번쯤 마음먹고 도서관에 와 보면 좋겠다. 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을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된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책속 세상으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오후 4시, 책읽어주기 시간이 되면 잠깐 사이에 도서관이 꽉 찬다. 민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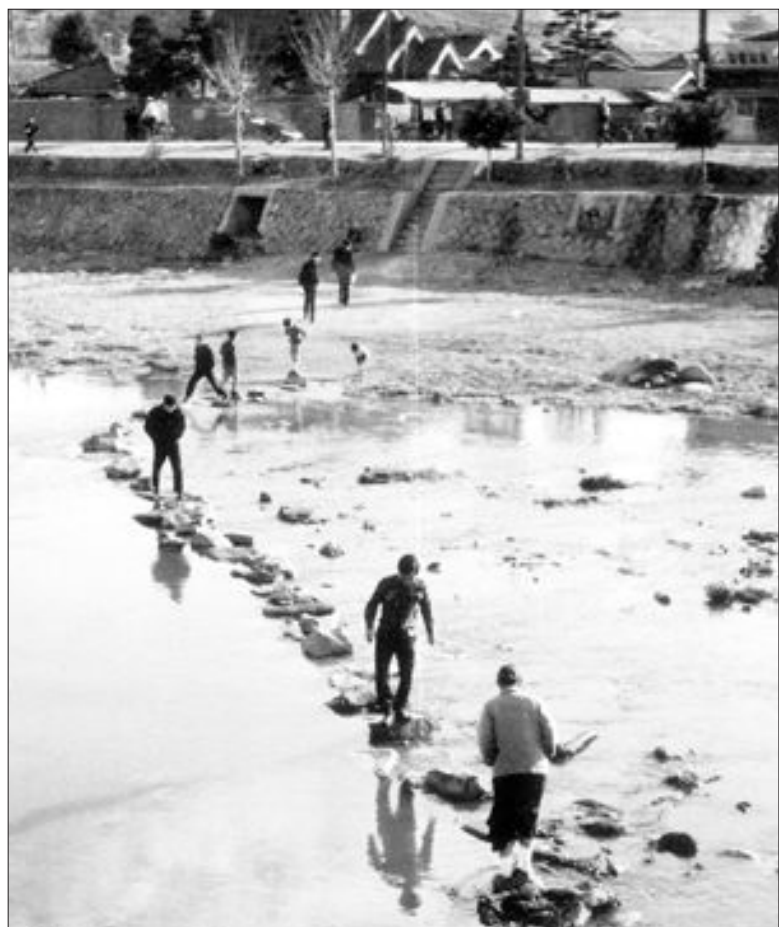
이는 간식으로 싸온 삶은 달걀을 하나씩 나눠준다. 꼼꼼하게 소금까지 종이 에 넣어준다. 형제가 없는 민혁이는 자꾸만 핑가를 나눠주면서 형 동생이랑 잘 어울린다. 그리고 보면 도서관은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주는 곳이기도 하다. 윤행이가 '나무'라는 그림책을 가져와서 "선생님, 이거 진짜 사람이예요"하고 알은 체를 한다. 책박사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책을 읽혀 주고 있는 윤행이가 글자를 읽을 줄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은 껍짝 놀란다. 그만큼 읽어줄 때 집중하는 능력이 놀랄 정도로. 책을 읽어주는 일은 이렇듯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을 발견하게 해주고 우리를 친밀하게 엮어준다.

좋은 책,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 친절하게 맞아주는 어른들이 있는 도서관에서 아이들은 세상살이의 따뜻함과 배려를 배울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배움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아이들 핑글다 간 자리를 청소하고, 어질러진 책을 제자리에 꽂고, 단정하게 정리된 도서관 문을 닫으면서 뒤돌아본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정봉남 (아이숲도서관장)

추억의 한컷



구 태평극장 앞 징검다리 건너는 시민들

40여년전 광주시 동구 구 태평극장 앞 광주천변, 학교 가는 길, 시장가는 길 빨리 갈라치면 총총 걸음으로 징검다리를 건너야 했다. 아슬아슬 징검다리를 건너고 자칫 친구들과 장난치다가는 물에 빠지기 일쑤였다. <'사진으로 본 광주 100년'에서>

독자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와 함께'는 우리 고장 기네스, 이웃 미담, 공동체 생활, 삶터 자랑, 추억의 사진 등을 보도하는 열린마당입니다. '숨겨진'에 실릴 시, 수필, 편지글, 사진 등 투고도 받습니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독자와 함께' 담당자 앞. 팩스 062-222-4937. e-메일 opinion@kwangju.co.kr.

칭찬합시다

"광주시 동구 학운동 장경희 복지사님 26년만에 동생 찾게 해 주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고혜숙이라 합니다. 대통령님께 편지를 쓴 이유는 잃어버렸던 동생을 26년만에 다시 찾도록 큰 도움을 주신 광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장경희 선생님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대통령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은 25년전 가난과 말못할 사연으로 동생을 잃은 후 죽은 것으로만 알고 제사까지 지냈고 부모님께서는 눈조차 제대로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 구청, 동사무소, 경찰 등 가지 않은 곳이 없던 중 2년전 학운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장경희 선생님의 전화 한 통화로 동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신체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저의 경제적 어려움을 아시고 차비 때문에 동생을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는 제 사정을 아시고 동생의 기초수급비 통장을 제게 주시고 동생을 위해 소모되는 교통비, 식비는 통장에서 찾아쓰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을 통해 동생을 만나고 짧은 공무원 생활을 통해 많은 삶의 의미를 얻었으나 말로 다 못한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어 수일을 고민한 끝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고혜숙·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클릭! 맛집

바다의 보물 환상 공합 더위에 지친 입맛 퓨전 전복요리가 살린다



광주 양산동 '전복장터'

초복(14일)이 코앞이다. 전복은 무더위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여름 보양식이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공장 인근의 '전복장터'는 신선한 전복과 문어로 요리한 '전복문어찜'을 선보이고 있다. 일식 경력 30여 년의 베테랑 요리사인 조경래(45) 사장이 직접 개발한 이색 음식이다.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전복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문어가 만났으니 효능은 두 말 하면 입 아프다.

전복과 문어·콩나물 버무린 '전복문어찜' 일식 30년 경력 조경래 사장이 직접 개발 값싸고 영양도 풍부...회·한방찜도 별미

전복과 문어는 적당히 익혔고, 갖은 양념이 스민 콩나물을 함께 찜는 맛도 개미가 있다. 전복은 완도의 깨끗한 바다 양식장에서 다시마만을 먹고 자란 3~4년산은 주로 쓴다. 여기에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인 여수 여자만의 문어가 맛을 더해준다. 조개·꽃게·복어로 우려낸 육수에 태양초, 청양고추를 넣은 양념은 알싸하지만, 지나치게 맵진 않다. 양도 푸짐해, 성인 5~6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전복문어찜 大(6만원)에는 문어 1kg, 아이들 손바닥 만한 4년산 전복 10미가 들어간다. 콩나물과 남은 양념에 밥을 비벼먹는 맛도 빼놓을 수 없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복어겉절이무침과 청양고추를 갈아 만든 일명 고흥식 열무김치도 별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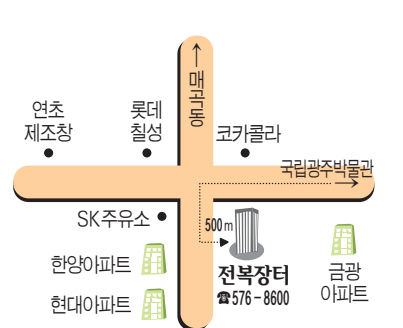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이 식객들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전복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올랐지만, 이 집 사장이 현지 양식장에서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재료를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저렴하다. 현재 전복의 생산지 판매가격이 4년산 1kg이 4만5천원이나, 이 집의 음식값은 매우 싼 편이다. 전복에 술이 빠질 순 없는 법. 살아 있는 전복을 불에 구워 먹는 전복구이(3만7천~6만원)와 8가지



<전복구이>

<전복회>

찾아가는 길



Advertisement for Kim Young's university entrance exam preparation. It features the text '2010년 대학편입 성공' and 'www.kimyong.co.kr'.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wangju Branch Kim Young University Entrance Exam Preparation Institute' and mentions '2009년 편입 김영출신 합격자 5,849명'.

A large advertisement for various local businesses in Gwangju. It is organized into a grid of boxes, each containing the name of a business, its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Businesses listed include '독도수산', '에플타워분양임대', '성흔결혼정보', '이엠스타학원', '효사랑광주노인복지센터', '고궁수리간(광주고속점)', '초고속인터넷가입센터', '빛고을빌딩분양임대', '배고파청국장', '바비스타치킨', '스피드메이트신화점', '고속선근대사전시장', '장원정', '비아꽃게장(본점)', '수원철학원', '주이들자동차매매상사', '호남원예사', '한마음부동산', '국제체질개선센터', and '원조젓짜리주점(상무점)'. Each box also includes a phone number.